

평화연구의 현황과 과제

홍민식(강원대학교 윤리학과 교수)

요약

이 논문은 지금까지의 평화연구의 주요흐름을 분석 정리하고 앞으로의 평화연구가 지향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제시해 보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

평화연구의 현황을 분석 정리하는 데에는 평화개념의 확장과 평화운동의 다변화, 국제질서의 변화를 변수로 냉전시대(1945-1970), 데탕트 및 신냉전시대(1971-1989), 탈냉전시대(1990-현재)로 나름대로 시기구분을 적용하였다.

냉전시대는 평화연구가 형성 분화되기 시작한 시기로 주로 전쟁문제를 다루던 1950년대의 미국중심의 '전통적 평화연구'와 전쟁문제를 넘어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제기했던 1960년대 갈통(John Galtung)이 주도한 북유럽 중심의 '비관적 평화연구' 그리고 '비판이론'에 토대를 둔 독일중심의 '네오 마르크스주의적 평화연구'가 주요흐름을 형성하였다.

데탕트 및 신냉전시대는 동서냉전 이외에 남북문제가 새로운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하면서 평화연구가 보다 깊이 있게 발전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게로까지 그 연구가 확산되었다.

탈냉전시대는 세계화의 도전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모습 속에서 안보개념이 보다 다변화, 다원화 되고 테러리즘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등장하면서 평화연구의 영역이 보다 확장 발전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평화연구의 형성 분화 발전과정은 결국 평화연구가 '평화

학'이라는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의 성장 발전과정이었다. 21세기를 맞고 있는 오늘날 앞으로의 평화연구가 지향해야 할 주요과제는 첫째, 평화를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내면화 시킬 것인가 즉 평화문화의 정착이다. 평화문화의 정착을 위한 세부적 실천적 과제로는 평화, 인권,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교육, 미디어 매체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방안, 문화적 다원주의와 문화 간 대화존중, 평화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정리를 토대로 한 새로운 대안 모색 등이 있다.

둘째, 어떻게 평화와 안보를 확보 유지 관리해 나갈 것인가 즉 평화와 안보의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 실천적 과제로는 기존의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정리 분석, 군축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 인간안보와 지구안보에 대한 집중적 관심, 유엔 헌장에 따른 유엔의 제반 평화유지 및 평화지원 활동, 현재 유엔의 권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기구의 모색, 그리고 세계화의 윤리적 토대 구축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평화연구자, 평화운동가, 평화교육자들의 보다 진지한 성찰과 성실한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I. 머리말

20세기가 시작되는 첫 해인 1901년에 제1회 노벨평화상 제정은 그 때까지 전쟁과 분쟁으로 얼룩진 현실에서 평화에 대한 인류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첨단살상무기 개발이 가능해진 20세기는 지난 세기에 비해 더욱 참혹해진 전쟁의 폐해에 시달려야 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참사와 이어지는 가공할만한 핵무기의 위협은 지속적인 인류

의 생존과 번영에 커다란 불안감과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다. 물론 고대 이래로 크고 작은 전쟁으로 점철되어온 인류역사에 있어서 평화는 영원한 화두였다. 평화는 전쟁으로 고통받아온 인류에게 소망스러운 삶의 목표이자, 과정이며, 동시에 조건이었다. 이러한 평화문제가 개별 국가의 보다 구체적인 관심사항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였다. 특히 근대 국가 체제 출범의 계기가 되었던 1648년 베스트팔렌조약 이후로 개별국가간의 안보 문제가 제기되면서 평화는 안보와 동일한 영역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평화연구는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운동으로부터의 자극과 영감 속에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가 조직화된 평화운동이 싹트기 시작한 시기였다면 20세기는 조직화된 평화연구가 정착되기 시작한 시기였다.¹⁾ 초기 평화연구는 전쟁연구가 주축을 이루었다. 1951년 전쟁학(Polemolog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프랑스인 부틀(Gaston Bouthoul)은 지금까지 하나의 사회현상(social phenomenon)으로서의 전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이해하라.”고 갈파하였다.²⁾ 그런데 점차 평화의 개념이 다양하게 확장되고, 아울러 평화운동도 단순한 반전운동을 넘어서 빈곤, 기아, 핵무기, 환경, 여성, 인권문제 등으로 그 관심영역을 확대하게 됨에 따라 평화연구는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와 발전을 겪게 되었다. 이제 전쟁의

1) Javier Perez De Cuellar(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vol.1, p. xxxviii (New York: OCEANA Publication, Inc, 1999).

2) *Ibid.*: 부틀은 과거 군사학에서의 전통적인 전쟁연구는 주로 전략전술과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집중되었다고 지적한다.

원인뿐만 아니라 평화의 조건까지 탐구 하게 된 평화연구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이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인 학제간 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평화연구는 평화에 대한 과학적·객관적 연구를 지향하지만, 주어진 현상에 대해 항상 옳고 그름의 판단을 추구하는 점에서 다분히 규범적이고 가치 지향적 성향을 갖는다. 이것은 어떠한 평화의 개념 속에서도 본질적으로 '인간성의 실현'에 이바지 한다고 하는 가치관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³⁾ 아울러 평화연구는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 필요 없는 국내적-국제적인 사회구조의 창출과, 사회적 불공정을 제거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국내적-국제적 질서형성을 구상하고 모색하는 점에서 정책 지향적 성향을 갖는다.⁴⁾ 따라서 평화연구는 이러한 성향들의 상호연관적인 과제를 함축하는 복합적인 학문 활동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평화연구의 내용과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으며, 앞으로의 평화연구의 과제는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정리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특히 평화연구의 현황을 분석·정리 하는 데에는 평화 개념의 확장과 평화운동의 다변화, 국제질서의 변화를 변수로 냉전시대, 데탕트 및 신 냉전시대, 탈냉전시대로 나뉘도록 시기구분을 적용하였고,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평화연구 현황도 자료수집 가능 범위 내에서 대체적으로 커다란 흐름들을 정리하였다.

3) 일본평화학회(편), 이경희(역), 『평화학 - 이론과 실제』(서울: 문우사, 1987), pp. 18-21.

4) Carolyn M. Stephenson, "Peace Studies, Overview," Lester Kurtz(ed),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and Conflict*, vol.2(London: Academic Press, 1999), pp. 810-811.

II. 평화연구의 출범배경

양차 세계대전에 걸쳐 자행된 엄청난 인명살상과 참혹한 파괴의 참상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이다.” 라는 명제에 대해 커다란 회의와 불신을 가져다 주었다. 나치즘과 파시즘, 군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집단광기와 집단폭력은 인간의 악마성과 야수성을 여지없이 폭로해 주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폐허의 잿더미 위에서도 인류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전쟁의 진원지였던 국가들에서 전쟁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평화운동의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동서 냉전 체제가 등장하게 되고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의 핵무기 개발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에 의해 인류 전체가 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면서 평화운동은 각종 평화교육과 더불어 더욱 활성화 되었다. 특히 새로운 무기체계인 핵무기의 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 관계가 조직됨으로써 평화연구를 보다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평화연구가 전쟁의 원인과 평화의 조건에 대한 학문적 탐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이후부터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화연구가 출범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다.

첫째, 모든 전쟁의 방지와 특히 핵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반전 평화운동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제2차 세계대전의 참상에 대한 뼈저린 반성과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가공할 핵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은 전쟁을 반대하고 인류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여러 가지 모임과 조직들이 활발하게 결성되도록 하였다.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파그워시 회의」(Pugwash Conference on Science and World Affairs)의 발족과 이에 따른 과학자들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조직의 결성이 반전 국제여론을 선도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원폭이 투하되었던 히로시마 에서는 1955년 제1회 세계 원수폭금지 대회가 열렸으며, 서구 일원에서는 일부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⁵⁾ 이 같은 활발한 반전 평화 운동은 전쟁과 평화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을 자극하게 되었고, 결국은 능동적인 평화연구를 출범시키게 되었다. 물론 반전 평화운동이 전개되었던 개별 국가들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의 상이함에 따라 평화연구도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둘째, 고대로부터 축적되어온 평화사상의 지속적인 영향이다. 사실 평화라는 개념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인류가 집단과 조직을 이루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 온 이래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갖고 이어져 왔다. 사상은 주어진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통찰력(Insight)과 지혜(Wisdom)를 제공해 준다. 혼란하고 불안한 사회상황 속에서 사상은 뚜렷한 판단지침을 제공하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 따라서 평화사상은 역사적으로 위기상황에서마다 평화회복을 위한 가치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사상적으로 평화사상은 고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보다 현실적으로 적실성을 갖는 것은 근대 이후 등장하게

5) 역사적 평화교회(Historic Peace church)로 불리우는 미국의 퀘이커파, 메노나이트파 등의 기독교 분파 세력을 말한다. 일본평화학회(편), 이경희(역), 앞의 책, pp. 27-32.

된 평화사상들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제국론을 통해 평화를 실현하고자 했던 단테에서부터 에라스무스, 그로티우스, 홉스, 로크, 생-피에르, 루소, 벤담 그리고 칸트로 이어지는 근대 평화사상의 핵심은 한마디로 “평화가 전쟁보다 좋다”는 공리적 관점이다.⁶⁾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는 “전쟁이란 세상에 만연해 있는 불화”의 총칭이며 “평화는 인간 상호간의 우애”임을 지적하고, 이따한 명분으로도 전쟁은 정당화되거나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특히 그는 군비와 전쟁의 비경제성을 강조함으로써,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종교적, 윤리적, 법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경제와 복지라는 인간의 공리적 측면에서 파악했다. 그로티우스(Hugo Grotius)는 인간이 자연법을 준수하는 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생명의 가치, 무력의 우열, 전쟁이 국민에게 끼치는 문제 등의 지적을 통해 전쟁 억제를 권고했다. 홉스, 로크, 루소와 같은 사회계약론자들은 자연상태에서의 인간의 조건을 규명하고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건설로 평화로운 질서를 창출하고자 했다. 특히 홉스(Thomas Hobbes)는 평화를 전쟁상태의 부재이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인간의 자연적 생명의 안전이 보장되는 상태로 인식하고 동의에 의해 성립된 튼튼한 국민국가의 틀 속에서의 평화를 강조했다. 로크(John Locke)는 평화를 정치적 작위의 산물로 보고, 국내정치에서의 평화는 계약에 의해 가능하지만, 국제정치에서는 상황에 따른 지도자의 정치적 사려로서만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다. 루소(Jean Jacques Rousseau)는 국제정치를 국내정치의 연장으로 보고, 인민주권에 근거

6) 이하 근대평화사상에 관한 언급은, 최상용, “근대서양의 평화사상,” 하영선(편),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pp. 13-40; 최상용, 『평화의 정치사상』(서울: 나남1997)을 주로 참고하였다.

한 국내체제의 변혁 및 민주화를 통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군주의 이성애 의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은 생-피에르(Saint-Pierre)는 전쟁의 불이익과 평화의 이익을 인민은 물론 군주가 자각함으로써 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벤담(Jeremy Bentham)은 전쟁은 반도덕적이고,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회피하려는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는 '최대규모의 해악'이며 '모든 악의 복합' 이라고 역설하고 식민지의 독립 민족자결, 권력정치에 대한 비판과 여론의 중시 등을 강조했다. 철학적·규범적 평화연구에서 가장 체계적인 저술인 『영구평화론』을 남긴 칸트(Immanuel Kant)는 영구평화에 이르는 인류의 노력을 도덕적 의무인 동시에 이성적 필연으로 보고, 영구평화를 인간이 끊임없이 접근해야할 정치적 최고선으로 보았다.

셋째, 전후 활기차게 등장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도입을 들 수 있다. 과학적 평화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폴란드의 경제학자 드 블록(Jean de Bloch)은, 이미 1898-1900년 사이에 계량적 방법을 사용해 기술,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미래의 전쟁을 분석한 전6권의 대작 『전쟁』을 출간한 바 있다.⁷⁾ 이러한 선도적인 과학적 연구방법은 양차대전 사이에 몇몇 서구의 주요학자들에 의한 실증적이고 체계적인 전쟁연구에서 보다 고무되고 발전된 형태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소로킨(Pitrim Sorokin), 라이트(Quincy Wright), 영국의 리차드슨(Lewis Richardson), 네덜란드의 드 리히트(Bart de Ligt)등이 선구적인 업적을 남겼다. 소로킨과 리차드슨은 처음으로 사회현상으로서의

7) Jean de Bloch, 『La Guerre: Traduction de l'ouvrage russe 'La guerre future aux points de vue technique, conomique et politique'』, 6 vols, Javier Perez De Cuellar, op,cit. p. xlix(Paris: Guillaumin, 1898-1900).

전쟁에 대한 주요연구를 시작했고 드 리히트는 1938년 그의 저서 『평화학 입문』(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peace)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화학」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1942년에 초판이 출간된 라이트의 『전쟁의 연구』(A Study of War) 전2권은, 독창적이고 방대한 규모의 계량적 조사연구 프로젝트의 결과물이었다.⁸⁾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학문연구방법에 있어 행태주의적 접근방법이 등장 함으로써 보다 세련되고 체계화된 평화연구의 분석틀이 갖추어 지게 되었다.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의 입장에서 인간 행위의 여러 결정요인을 연구 분석하는 이 새로운 경향은 심리학, 인류학, 사회학 그리고 자연과학 등 인접학문 분과와의 학제간 연구를 촉발 시켰고, 향후 평화연구의 내용과 방법이 확장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⁹⁾

Ⅲ. 평화연구의 현황

1. 냉전시대(1945-1970)

앞서 언급한 배경에서 출범한 평화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두 강대국을 중심축으로 하는 동서냉전체제가 등장하게 되면

8) 라이트는 1926년 미국 시카고 대학의 '사회과학 연구위원회'의 '전쟁원인 소분과 위원회'의 의장으로 7년동안 계속 25명의 연구조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66가지의 연구과제가 담긴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시켰다. Quincy Wright, *A Study of War*(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42, 1965).

9) David J. Dunn, "Peace Research," Trevor Taylor(ed), *Approaches and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London: Longman, 1978), p. 261.

서 특히 195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냉전 시대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의 평화 연구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평화연구운동’(Peace research movement)이라 불릴 정도로 그 연구 열기가 뜨겁고 적극적이었다.¹⁰⁾ 이 시기 연구의 기본적인 특징은 20세기에 들어와 두 번씩이나 겪은 세계대전의 엄청난 영향 속에서, 미국과 소련간의 대규모 핵전쟁이 될지 모르는 또 하나의 세계대전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 출발하고 있다는 점이다.¹¹⁾ 냉전시대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의 평화연구는 주로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연구가 주목할만 한데, 그동안의 미국 중심의 ‘전통적 평화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¹²⁾ 이 시기 연구의 기본적인 특징은 동·서 냉전체제가 서서히 완화되고, 제3세계 국가들이 대거 독립하여, 남북문제가 점차 제기되는 가운데 평화연구가 지역적으로 확산되며, 평화의 개념이 확장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럼 먼저 1950년대 미국이 주도했던 ‘전통적 평화연구’의 흐름을

10) Kenneth Boulding, “The Philosophy of Peace Research,”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Third Conference vol. I, Philosophy of Peace Research*(Assen: Van Gorcum, 1970), pp. 5-19.

11) 하영선, “새로운 국제 정치이론을 찾아서: 평화연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vol.21(1984), pp. 3-11.

12) 한 연구자는 평화연구의 흐름을 미국 중심의 평화연구를 ‘전통적 평화연구’, 갈등이 주도했던 북구 중심의 평화연구를 ‘비판적 평화연구’로 분류하고 있다. Kenneth Boulding은 미국 중심의 평화연구를 narrow school, 북구 중심의 평화연구를 broad school로 분류하였다; 조현석, 『평화개념의 현대적 전개에 관한 고찰 - J. Galtung의 ‘비판적 평화연구’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3); Kenneth Boulding, “The Philosophy of Peace Research,” op.cit., pp. 5-19.

정리해 보기로 한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연구운동’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1956년 미국의 미시건(Michigan)대학에 「분쟁해결연구소」(Center for Research and Conflict Resolution)가 설립되고 그 이듬해인 1957년에 전쟁과 평화에 관한 최초의 전문 학술지인 『분쟁해결논집』(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이 간행되기 시작했다. 1972년 이후에는 예일(Yale)대학으로 옮겨서 지금까지 계속 간행되고 있는 이 학술지에는 라이트(Quincy Wright)와 리차드슨(Lewis Richardson)의 경험주의적 실증주의적 연구의 전통을 계승하는 여러 학문분야의 전문학자들이 적극 참여하였다. 이 전문학자들은 1950년대 초반 스탠포드(Stanford) 대학의 「행동과학고등연구소」(Center for Advanced Study in Behavioral Science)의 ‘평화연구’ 모임의 주축 멤버들로서 볼딩(Kenneth Boulding), 도이치(Karl Deutsch), 라스웰(Harold Lasswell), 싱거(David Singer), 라포포트(Anatol Rapoport), 켈만(Herbert Kelman), 크류크론(Clyde Kluckhohn) 등을 꼽을 수 있다.¹³⁾ 이들은 경제학, 정치학, 심리학, 인류학, 생물학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연구자들이지만, 인간의 행동으로서의 사회현상이 관찰 가능하고 얼마든지 통계화, 수량화 할 수 있으며, 전쟁과 분쟁도 객관적 방법에 의해 제어·관리 할 수 있다고 하는 공통된 신념을 지니고 있었다.

이 같은 학제간 연구의 토대위에서 또 다른 세계대전의 위협을 막아 보자는 지적 노력 이외에 이 시기 미국의 평화연구에서 주목할 평화연구의 흐름은 ‘평화연구의 아버지’로 불리어지는 렌츠(Theodore F. Lentz)의 정신을 계승하는 실천적인 평화주의자의 그룹을 들 수 있다.

13) Paul Rogers and Oliver Ramsbotham, “Then and Now: Peace Research: Past and Future,” *Political Studies*, XLV II(1999), pp. 740-754.

이미 1945년에 미국 최초의, 평화연구 기관이라 할 「평화연구소」(Peace Research Laboratory)를 설립하고 1955년에는 『평화학을 지향하며』(Toward a Science of Peace)라는 저술을 통해 렌츠는, 핵무기 위협 시대에 있어서 평화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¹⁴⁾ 이러한 렌츠의 실천적 노력은 미국은 물론 캐나다, 북유럽 등의 평화연구 기관들이 설립되는데 영향을 미쳤고, 1970년에 설립된 세계최대급의 평화학회인 「평화연구, 교육, 발전 협의회」(Consortium on Peace Research, Education and Development)에 속하는 많은 연구자, 교육자, 활동가들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1960년대 북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비판적 평화연구’의 흐름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노르웨이의 탁월한 연구자인 갈통(Johan Galtung)에 의해 주도된 북유럽의 평화연구는 그동안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전통적 평화연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한다. 1959년 오슬로 대학 「사회연구원」(Institute of Social Research)에서 ‘분쟁과 평화연구’(Conflict and Peace Research) 프로그램을 시작했던 갈통의 헌신적 노력으로 1963년 1월과 9월에 각각 「제1회 북유럽 평화연구학회」와 「유럽 평화연구학회」가 모두 오슬로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었다.¹⁵⁾ 1964년에는 북유럽 평화연구를 선도하는 『평화연구논집』(Journal of Peace Research)이 창간되었으며, 갈통의 ‘분쟁과 평화연구’ 프로그램은 1966년 「오슬로 평화 연구소」(PRIO: Peace

14) 일본평화학회(편), 이경희(역), 앞의 책, pp. 28-29; Theodore F. Lentz, *Toward a Science of Peace*(London: Halcyon Press, 1955).

15) 미국에서도 1963년에 「미국 평화연구 협회」(US Conference on Peace Research)가 창립되었다.

Research Institute Oslo)로 독립·발전하였다.¹⁶⁾ 1965년 네덜란드의 그로닝겐(Groningen)에서 열린 최초의 「국제 평화연구학회」역시 갈통의 주도적 역할로 추진된 것이었으며 이후로 「오슬로 평화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북유럽의 평화연구가 「국제평화연구학회」의 주류를 형성하였다. 스웨덴 에서는 150년 동안 스웨덴에 평화가 지속된 것을 기념하여 1966년에 뮌르달(Gunnar and Alva Mirdal)부부등의 노력으로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가 설립되었고, 핀란드 에서는 1969년에 탐파레(Tampere Peace Research Institute)가 설립되었다.¹⁷⁾

미국 중심의 '전통적 평화연구' 에서 평화는 전쟁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갈통은 1964년 『평화연구논집』창간사에서 전쟁의 부재라는 평화 개념은 소극적 차원에 불과하며, 여기에 인간사회의 통합이라는 적극적 차원이 함께 논의 되어야함을 지적하고 기존의 평화개념을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로 확장하였다.¹⁸⁾ 이 시기에 점차 남북문제가 등장되기 시작되는 상황에서 북유럽의 평화연구자들은 이후로 평화연구의 중심테마로서 전쟁보다는 더욱 일반적인 폭력의 개념을 사용하고자 했다. 그들에게 있어 전쟁은 직접적 폭력이고, 빈곤, 억압, 인종차별, 무질서, 문맹, 기아, 인권탄압 등은 구조적 폭력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전통적 평화연구' 가 이 같은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외면한 채 분쟁 회피 등의 연구에만 치중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갈통은 1969년 발표한 논문 "폭력, 평화 그리고 평화연구"에

16) 일본평화학회(편), 이경희(역), 앞의 책.

17) Rogers and Ramsbortham, *op. cit.*, p. 743.

18) Johan Galtung, "Editorial,"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no.1(1964).

서 이러한 논의를 진전시켜, 진정한 의미의 평화는 직접적 폭력의 부재 즉, 소극적 평화와 사회정의라는 의미에서의 구조적 폭력의 부재인 적극적 평화를 함께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⁹⁾ 갈통이 제시한 '구조적 폭력'의 개념은 북유럽의 '비판적 평화연구'의 핵심개념으로, 이후 평화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냉전시대에, 미국중심의 '전통적 평화연구'와 북유럽 중심의 '비판적 평화연구' 경향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1960년대 말 등장해 이 두 경향 모두를 비판하던, '네오-막시스트(Neo-Marxist) 평화연구' 경향이다.²⁰⁾ 슈미드(Herman Schmid)등이 주도한 '네오-막시스트 평화연구'는 1960년대 말 미 소냉전관계가 완화되면서 핵전쟁 위험성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가 조성된 반면,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서의 고전과 1968년 체코의 자유화 운동에 대한 소련의 무력침공으로 인한 동구권의 동요 가운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초강대국간의 대립이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갈등과 이해의 충돌이란 인식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슈미드는 1968년 발표한 논문 "평화연구와 정치"에서 지금까지의 평화연구 핵심은 기존의 국제체제의 붕괴를 막기 위한 통제와 동시에 이 체제를 보다 안정화시키기 위한 통합의 문제였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연구는 '드러나 있는 분쟁' (manifest conflict)을 어떻게 통제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져 있는 분쟁' (latent conflict)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가에 있으며, 또한 어떻게 통합을 이룰 것인가 보다는 분쟁이 어떻게 기존의 국제체제를 붕괴할 정도까지 격렬화 되는

19)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Essays in Peace Research*, vol.1(Copenhagen: Christian Ejlert, 1975), pp. 109-134.

20) 조현석, 앞의 글, pp. 27-37.

가를 분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²¹⁾ ‘네오-막시스트 평화연구’는 기존의 평화연구가 엄격한 과학적 기반에 입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통제의 기술이고, 이는 과학과 이데올로기, 평화와 갈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한다.²²⁾

냉전시대의 이러한 ‘전통적 평화연구’, ‘비판적 평화연구’, ‘네오-막시스트 평화연구’ 흐름은 평화연구가 뚜렷한 학문적 영역으로 확립되어가는 과정이었다.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해 국가들 간의 협력을 증진시킴으로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46년 출범한 유네스코(UNESCO)는 1960년대에 들어와 평화연구가 더욱 발전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대학들에서 평화학 학부과정이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는 유럽대학들로 확산되게 되었다.²³⁾

그러나 이러한 조류 속에서도 동서냉전체제 상황을 배경으로 진행되었던 이 시기 평화연구는 핵전쟁 방지를 위한 억지전략, 미-소간 군비 축소와 긴장완화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고, 그 결과 이 분야의 선구적인 업적이 많이 나왔다. 특히 1965년 브로디(Bernald Brodie)가 주장하고 월스테터(Albert Wohlstetter), 셸링(Thomas Shelling)등이 이론화 한 ‘억지이론’ (deterrence theory)은, 미-소 양국간에 핵전쟁을 막는 논리가 되었다.²⁴⁾ 같은 해 왈츠(Kenneth Wartz)는 전쟁에 관

21) 위의 글, pp. 19-20.

22) 슈미드는 미국의 평화연구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아울러 기존 평화연구의 통제와 통합에 대한 그의 비판은 갈등이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적극적 평화와 구조적 폭력의 개념을 다듬는데 영향을 미쳤다.

23) 김명섭, “평화학의 현황과 전망,” 하영선(편), 앞의 책, pp. 136-137.

한 탁월한 분석물인 『인간·국가·전쟁』을 발표했고 1965년 라포포트(Anatol Rapoport)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논의도 전쟁방지 노력에 기여했다.²⁵⁾ 1966년 설립된 스웨덴의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매년 『세계의 군비와 군축』을 연감으로 발행함으로써 군비와 군비 축소문제 연구에 크게 기여하였다.

2. 데탕트 및 신 냉전시대(1971-1989)

1960년대 말 핵 강대국 미국과 소련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1972년 미국과 중국간의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서냉전 체제는 데탕트(détente) 즉, 긴장완화의 시대를 맞게 되었다. 데탕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970년대는 그동안의 미국과 북유럽에서의 평화연구 경향이 유럽 여러 나라는 물론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지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또한 1960년대 말부터 등장되기 시작한 남북문제가 국제정치의 주요이슈로 제기되면서 이 시기의 평화연구는 강대국 간의 분쟁 보다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정치·경제적 불평등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갈등이나, 저개발로 인한 빈곤, 질병, 기아, 인권유린 등과 같은 ‘구조적 폭력’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80년대는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으로 이러한 데탕트 시기에 금이 가고 신 냉전기류가 조성되었던 시기이다. 이시기의 평

24) 한용섭, “평화의 군사안보,” 하영선(편), 위의 책, p. 209.

25) Kenneth Wartz, *Man the State and War: A Theoretical Analysis*(NewYork: Columbia, University, 1959); Anatol Rapoport, *Prisoner’s Dilemma: A Study in Conflict and Cooperation*(Ann Arbor,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65).

화연구는 핵전쟁의 공포와 위협이 다시 강조되면서, 핵문제와 군축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와 더불어 군축교육과 반전평화교육의 강화가 주장되고, 적극적인 반전 평화운동이 국제적으로 조직화되었다. 평화 연구는 데탕트 및 신 냉전 시대에 와서 「평화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²⁶⁾

그럼 먼저 1970년대 데탕트 시기의 평화연구의 주요흐름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북유럽의 평화연구가 「국제 평화연구학회」의 주류를 형성한 이후로 평화연구는 유럽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광범하게 발전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다른 어느 지역보다 평화운동과 평화교육이 전통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등에서 평화연구가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었다. 평화연구에 있어서 미국 못지않은 국제분쟁연구로 「전쟁학」(Polemology)을 그 내용으로 해온 네덜란드는 이미 제2차 세계대전부터 비무장 저항의 체계적 연구를 목표로 하는 「평화학」운동이 있었다. 이러한 전통위에서 네이메건 대학의 「평화연구센터」와 암스텔담 자유대학의 「평화연구 작업그룹」이 탈 이데올로기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평화연구의 중심지가 되었다. 네덜란드와 함께 유럽 평화연구운동의 핵심역할을 해온 벨기에는 평화연구, 평화교육, 평화운동을 종합적으로 추구하는 폭넓은 국제 활동을 계속 해온 「비폭력 대안협회」와 루벵 카톨릭 대학의 「평화연구센터」, 브뤼셀 대학의 「전쟁 사회학센터」를 운영해 왔다.²⁷⁾

26) 고대 희랍에서는 평화를 'Irene'로 사용했다. 볼딩은 1978년 「평화학」을 'Irenology'로 부르며 있는데 일반적으로 'Peace Studies', 'Peace Science'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Kenneth Boulding, *Stable Peace*(Austin, Texas: University of Texas, 1978)

27) 일본평화학회(편), 이경희(역), 앞의 책, pp. 34-35.

「국제 평화연구학회」의 영향 속에서 1971년 스웨덴의 옅살라 대학에 「평화와 갈등연구 학과」가 설립되었고, 평화주의자들인 퀘이커 교도들의 지원으로, 1973년에는 영국의 브래드포드 대학에 「평화학부」(School of Peace Studies)가 설치되었다.²⁸⁾ 영국의 주요 평화연구 기관으로는 랭카스타 대학의 「평화학센터」, 「리차드슨 분쟁·평화연구소」, 켄트대학의 「분쟁분석센터」 등을 뽑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동방정책(Ostpolitik)을 추진했던 빌리 브란트 수상의 후원아래 1970년 설립된 서독의 「독일 평화·분쟁 연구협회」는 빠른 시일 안에 성장을 거듭하여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평화연구 기관이 되었다. 특히 서독의 평화연구는 프랑크푸르트학파를 이끌던 마르쿠제, 아도르노, 하버마스 등의 '비판이론' 적 시각을 기존의 평화연구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 평화연구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준 것으로 평가된다.

1974년 「국제평화연구학회」제5차 총회가 인도의 「간디연구소」에서 개최한 것을 계기로 평화연구는 광범하게 제3세계 국가들로 확산되었다. 중남미 지역이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는 평화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특히 1977년 「국제평화연구학회」제7차 총회가 개최된 멕시코에서는 「라틴아메리카 평화연구 협의회」가 결성되어 이 지역의 평화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3년 「일본 평화학회」를 창립한 일본은 1975년 유네스코 후원아래 동경에서 '아시아 평화연구 심포지움'을 개최한바 있고 이 모임은 1980년 「아시아 평화연구학회」로 발전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연구 발전을 선도하였다.²⁹⁾

1970년대에 들어와서 동·서의 냉전구도가 완화되고, 남북문제가

28) 김명섭, 앞의 글, p. 138.

29) 일본평화학회(편), 이경희(역), 앞의 책.

국제사회의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갈등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사회정의 차원에서 적극적 평화와 구조적 폭력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켜 평화개념의 지평을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평화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갈등은 지금까지 정치·군사적 논리에서 다루어지던 세계질서의 안정으로서의 평화 개념이 적절치 않으며, 불평등한 성격을 갖고 있는 세계질서의 구조적 결함에 대한 고찰과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갈등은 구조적 폭력의 한 유형으로 국제관계에서는 제국주의를 들고 있는데, 이 제국주의로 인해 중심국과 주변국 관계에서 뿐 아니라, 주변국 내부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고, 구조화되어 있다고 보았다.³⁰⁾ 결국 갈등은 제국주의 현상을 평화를 저해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파악함으로써 중심국의 제국주의적 지배와 주변국의 종속을 세계적인 평화정착의 과제와 연결시키고 있다.³¹⁾ ‘비판이론’적 시각에서 독일의 평화연구를 선도해온 쟁하스(Dieter Senghaas)도 종래의 동·서 분쟁이나 남북분쟁 등의 제한된 도식화로는 현대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성격에 연유하는 다양한 분쟁양태를 설명할 수 없다고 보고, 구조적 폭력의 개념을 원용해 현재 국제사회에서의 지배적인 분쟁양태를 선진자본주의 국가간의 분쟁, 동·서간의 분쟁, 선진공업국이라는 중심과 제3세계라는 주변간 분쟁, 사회주의 국가간 분쟁, 제3세계 국가간 분쟁 등으로 지적하였다.³²⁾ 이 시기에 또한 갈등 못지 않은 탁월한 평화연구자로 럼멜(R.J.Rummel)을 들 수 있다. 평화질서

30) Johan Galtung,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IV, pp. 437-438(1971).

31) 조현석, 앞의 글. p. 54.

32) Dieter Senghaas, "Conflict Formation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Societ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10, no.3(1973), pp. 163-184; 조현석 위의 글.

분야연구에 독창적인 학문적 기여를 해온 자유주의 평화 이론가라 할 수 있는 럼멜은 갈등의 심리적, 사회적 원인과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의 구체적 속성과 갈등 행위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민주주의 국가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을 이론화 하였으며, 평화증진의 규범적 명제로 ‘자유증진’ (Promote Freedom)을 제시하였다. 그는 1975년에서 1981년에 걸쳐 전5권의 대작 『갈등과 전쟁의 이해』 (Understanding Conflict and War)을 출간함으로써 평화연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³³⁾

다음으로 1980년대 신 냉전시기의 평화연구의 주요흐름들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978년 뉴욕에서 열린 제1차 유엔 군축특별 총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나고 1980년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무력침공으로 미·소간 ‘전략무기회담’ (SALT)이 중단되고 지난 10년 가까이 누려왔던 데탕트 분위기가 깨지면서 신 냉전시기가 시작되었다. 핵위기의 공포와 위협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이 시기의 평화연구는 핵과 군축문제 그리고 기존의 군사안보에 기초한 절대안보 개념에 대한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전환 모색, 군축교육 및 반전 평화 교육의 확산 등이 중심 과제로 등장하였다.

이 시기는 평화학 프로그램이 유네스코의 후원아래, 대학 학부과정 뿐 아니라 중·고등학교 과정까지 확산 되었고 「스톡홀름 국제 평화연

33) R.J.Rummel, *Understanding Conflict and War(UCW)*, Vol.1: *The Dynamics of Psychological Field*(Beverly Hills: Sage, 1975).

UCW, Vol.2: *The Conflict Helix*(Beverly Hills: Sage, 1976).

UCW, Vol.3: *Conflict Perspective*(Beverly Hills: Sage, 1977).

UCW, Vol.4: *War, Power, Peace*(Beverly Hills: Sage, 1979).

UCW, Vol.5: *The Just Peace*(Beverly Hills: Sage, 1981).

구소」처럼 국가적 지원을 받는 많은 평화관련 연구소들이 1984년 미국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설립되었다. 1980년에는 유네스코 주최의 ‘평화, 군축 교육 세계회의’가 개최되어, 평화교육과 인권교육의 결합 등 군축교육의 원칙들을 확인하였다.³⁴⁾ 기존의 절대 안보 개념은 공동안보(common security), 상호안보(mutual security)로 전환이 모색되었다. 그동안 국가간의 무한한 군비경쟁은 어느 쪽도 원하지 않았던 안보딜레마(security dilemma) 현상을 낳았다. 안보딜레마란, “한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려는 매우 합리적인 동기에서 군사력 건설을 시작하지만, 다른 국가도 역시 안보불안을 없애기 위해 군사력 건설을 계속한다. 이 작용-반작용적인 군비경쟁의 결과 어느 국가도 군비경쟁시작 전보다 안전하지 못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³⁵⁾ 사실 미·소간의 군비경쟁은 1987년에 그 절정에 달했다.

결국 절대 안보에 기초한 군사력 증진만으로는 개별국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소련의 몰락에서 보듯이 과도한 군비지출은 경쟁국의 경제체제를 약화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인식에서 1982년 「유엔 군축과 안보문제에 관한 독립적 위원회」(UN Palme Commission)가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안보개념에 대한 연구 결과 ‘공동안보’와 ‘상호안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공동안보는 “어떤 한 국가도 그 자신의 군사력에 의한 일방적 결정, 즉 군비 증강에 의한 억지만으로 국가의 안보와 평화를 달성할 수 없으며, 오직

34) 김명섭, 앞의 글, p. 140.

35) John Herz, *International Politics in Atomic Ages*(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59), pp. 231-235; 한용섭, 앞의 글, p. 215.

상대국가들 과의 공존공영을 통해서만 국가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³⁶⁾ ‘상호안보’는 고르바초프의 소련국방정책에 대한 수정과 1986년 ‘유럽 안보 협력 협의’의 스톡홀름 선언 채택 등으로, 종래 적대적인 양 진영간의 안보전략과 개념의 수정이 요구되는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다. 1987-1989년 미국 브라운 대학의 「외교정책발전연구소」와 소련 과학아카데미 산하 「미국 캐나다 연구소」가 공동연구 결과로 「상호안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다. 상호안보는 “각자가 상대방의 안보를 감소시키거나 저해함으로써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결국 자국이나 자기 진영의 안보는 타국이나 타진영의 안보를 똑같이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공동으로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³⁷⁾

3. 탈냉전시대(1990-현재)

1989년 12월 2일 지중해의 몰타(Malta)섬에서 미·소 정상 간에 동서냉전 종결이 선언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탈냉전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미 같은해 2월 15일 아프카니스탄 주둔 소련군이 철수를 완료하고, 11월 9일에는 동서냉전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개방되므로서

36) Bjorn Moller, *Common Security and Non-Offensive Defense: A Non-realist perspective*(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Inc, 1992), pp. 28-30; Olof Palme, “Independent Commission on Disarmament and Security Issues,” *Common Security: A Blue Print for Survival*(NewYork: Simon and Schuster, 1982).

37) Ricard Smoke and Andrei Kortunov(eds.), *Mutual Security: A New Approach to Sovie-American Relations*(NewYork: St.Martin’s Press,1991); 한용섭, 앞의 글, p. 216.

1990년은 탈냉전시대 원년이 되었다.

사회주의 동구와 소련이 붕괴되면서 사실상 미·소간의 군사적, 이념적 대결구도는 사라지게 되었고 미국은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제 새롭게 형성된 국제질서는 미국이 주도하고 이에 동조하는 다른 나라들이 참여하는 ‘협조에 의한 평화’ (Pax Consortia) 체제라는 과도기적이고 불안정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 점차 EU와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대한 가시적인 경쟁자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탈냉전시대가 출범하자 바로 1991년 1월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따른 걸프전쟁이 발발하였다. 걸프전쟁 이후의 국제사회는 인종, 민족, 종교적 갈등에 따른 분쟁이 외에 빈곤, 기아, 인권탄압, 환경오염, 자원고갈,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의 확산, 국제범죄와 테러리즘, 신종전염병의 창궐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급속히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개별국민국가(Nation State)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동요하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들이 한 국가의 차원이 아니라 인류전체의 생존과 번영이라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다. 탈냉전시대의 평화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배경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우선 전통적인 평화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던 군사적 측면 중심의 안보 문제가 그 내용과 방향에 있어 비군사학적 측면이 강조되는 등 보다 다각적인 측면으로 재검토되었다. 기존의 국가안보에 대응하는 개인안보, 인간안보, 정치안보, 경제안보, 사회안보, 환경안보, 자원안보, 식량안보, 문화안보 등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했다.³⁸⁾ 또한 기존의 군사안보 영역도 1980년대의 상호안보, 공동안보 이외에 협력

38) 김명섭, 앞의 글 p. 141.

안보, 포괄적 안보라는 개념의 등장으로 보다 심층화 되었다. 그동안 북유럽중심의 '비관적 평화연구'를 주도해온 갈통은 1996년 저술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Peace by Peaceful Means)에서 기존의 모든 평화연구의 논리들을 조망하고 체계화하는 평화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자유주의 평화이론'을 제시한 림멜도 1990년대 이후의 일련의 저술들에서도 평화질서의 유지를 위해 자유와 민주주의가 필수적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인권, 환경, 여성,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유네스코를 통한 평화교육이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평화연구의 영역도 그만큼 확장되게 되었다.

탈냉전시대의 평화연구의 주요흐름을 조망하는데 있어 먼저 안보문제의 다변화와 다각화를 검토하기로 한다. 안보문제의 다변화, 다각화를 선도하고 있는 연구가는 영국의 부잔(Barry Buzan)으로, 그는 1991년 오늘날 군사 분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분야 등에서도 국가에 대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군사 분야가 중심이 된 국가안보영역에 이 분야들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국가안보에 대응하는 개인안보의 개념을 제시했다.³⁹⁾ 1994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간한 『인간개발보고서』에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탈냉전시기에 들어와, 국가안보에서 국가생존이 어느 정도 확보되고, 국가간 힘의 맹목적 추구현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안보추구가 국가의 구성

39) Barry Buzan, *People, States and Fear: An Agenda for International Security Studies in the Post-cold war Era*, 김태현 역, 『세계화시대의 국가안보』(서울: 나남, 1995).

원인 개인들에게 실제로 안전과 자유를 보장해왔는가 라는 반성에서 출발된 것이었다.⁴⁰⁾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불평등, 저발전, 국가의 정치불안정과 빈번한 종족분쟁으로 인해 국가폭력이 무자비하게 개인과 종족을 말살하게 되는 현실에서 안보개념도 국가중심에서 국내문제와 개인의 인권을 중시하는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인간 개인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고자하는 움직임에서 출발하여, 개인들을 결핍과 공포,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발전된 인간안보문제는 오늘날 유엔과 국제기구, 범세계적 NGO운동 등에서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으로 추진되고 있다.⁴¹⁾ 이 인간안보 개념은 경제안보, 환경안보, 식량안보 등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안보개념들을 적절히 포괄할 수 있고, 군사안보 중심적 국가안보 개념에 대한 대체적 효과가 높은 개념으로, 오늘날 많은 평화연구자들의 폭넓은 관심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⁴²⁾

탈냉전시기 군사안보영역의 심층화 현상으로,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와 포괄적안보(comprehensive security)개념이 등장되었다. 협력안보는 각 국가의 군사체제간의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협력적 관계의 설정을 추구함으로써 근본적으로 상호양립 가능한 안보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협력안보는 상대국의 군사체제를 인정하고 상대국의 안보이익과 동기를 존중하면서 상호 공존을 추구하며, 전쟁예방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의 합의된 조치들을 추구하고 침략의 수단을 총동원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치를 적극

40)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p. 2.

41) 한용섭, 앞의 글, p. 206.

42) 김명섭, 앞의 글.

추구한다는 특성을 갖는다.⁴³⁾ 포괄적 안보는 경제적협력과 지역적노력 그리고 평화적 수단을 통해 국가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약을 통해 상호의존성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들은 궁극적으로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본다. 포괄적 안보는 안보에 있어서 군사적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평화적 대화, 경제적 협력, 상호의존성 증대, 국가들의 통치능력 증진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체제위에서 해당 국가들 간의 협력증진을 도모하며, 결국 군사적 위협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⁴⁴⁾

탈냉전시기에 갈통은 지금까지의 평화연구를 경험주의에 기초한 경험적(empirical)평화연구, 비판주의에 기초한 비판적(critical)평화연구, 구조주의에 기초한 구조적(constructive)평화연구로 집약하면서 평화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평화연구 패러다임은 진단(Diagnosis)-예측(Prognosis)-치료(Therapy)라는 삼각형 구도의 역동성을 적용시켜, 데이터분석과 이론적 예측, 가치적 판단을 토대로 평화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려는 시도이다.⁴⁵⁾ 갈통은 건강 연구에서의 '건강-질병'의 개념처럼 평화연구에서 '평화-폭력'의 개념을 대위시키면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자신의 폭력과 평화의 유형을 확대시키고 있다. 먼저 폭력의 유형은 기존의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외에 문화적 폭력을 추가하고 있다. 언어적인 폭력과 신체적 폭력으로 구분되는 직접적인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 요소를 일으킨

43) Janne, E. Nolan(ed), *Global Engagement: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pp3-18

한용섭, 앞의 글, p. 219.

44) 위의 글, p. 223.

45) Johan Galtung(1996), pp. 69-91.

다. 정치적 억압, 경제적 착취의 형태로 나타나는 구조적 폭력은 그 자체로 반복 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낳는다. 그 내용에 따라 종교, 법과 이데올로기, 언어, 예술, 과학 등으로 학파, 대학, 미디어 등을 통해 나타나는 문화적 폭력 역시 반복과 완성을 통해 그 자체를 형성한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형성하는데,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평화의 유형은 기존의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의 분류에서 적극적 평화를 직접적 평화, 구조적 평화, 문화적 평화로 세분하였다. 소극적 평화는 모든 종류의 폭력의 부재상태이며, 적극적 평화 중 직접적 평화는 말과 신체적인 친절로 이루어지며, 자신과 타인의 몸과 마음, 영혼에 유익한 것으로 우리들이 기본적 욕구, 생존, 복지, 자유, 정체성에 호소한다. 구조적 평화는 억압을 자유로, 착취를 균등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강요대신 대화를, 분리를 통합으로, 분열을 연대로, 소외를 참여로 대체한다. 문화적 평화는 폭력의 정당화를 평화의 정당화로 대체하는 것으로 종교, 법, 이데올로기, 언어, 예술, 과학, 학파, 대학 그리고 미디어 등의 다양한 부분을 통해 적극적인 평화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문화적 평화가 형성된다면, 이는 다양한 상대들 간의 공생적이고 동등한 관계와 더불어 구조적 평화를 낳고, 나아가 협력활동이나 우정과 사랑을 통해 직접적 평화를 산출하는 평화신드롬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⁴⁶⁾ 결국 평화는 구체적으로 갈등의 전환이나 변형을 통해 가능한데 상생(Symbiosis)이야말로 갈등의 가장 창조적 해결방식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상생은 갈등 당사자 모두의 승리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피하고 평화를 획득할 수 있는 최상의 해답

46) 김승채, 이학곤, 『평화와 평화상』(서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4), pp. 26-27.

인 것이다.

4. 한국의 평화연구

지금까지 서구지역에서의 평화연구의 주요흐름들을 정리해 보았다. 21세기인 오늘날 현실에서도 여전히 분단국가로, 냉전의 섬으로 남아 있는 한국에 있어서 평화연구는 서구지역에 비해 늦게 조직화 되었다. 1970년대까지는 주로 대학의 강단에서 국제정치학 분야를 가르치는 교수들에 의해 전쟁론, 국제관계론, 국제기구론 등의 과목에서 평화문제가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이 시기에 주목할 연구자는 자유주의 평화이론가인 림멜문하에서 학위를 마치고 1973년 귀국한 이상우로, 그에 의해 비로소 서구의 체계적인 평화연구가 소개되기 시작했다.⁴⁷⁾ 이 시기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45년 결성)가 유엔의 평화운동, 평화교육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면서 국내에서의 평화연구를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⁴⁸⁾ 한국이 다른 서구국가들에 비해 평화연구의 출발이 늦게 된 것은 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분단 상황에서 평화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부답이 가는 현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0년대는 특히 미국에서 국제정치학으로 학위를 마친 연구자들이 대거 귀국하기 시작하면서 구미의 새로운 국제정치이론들이 소개되고 주로 국제정치학의 영역에서 평화문제가 관심있게 다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하영선은 처음으로 1981년 한 논문에서 기존의 서구의 평화연구

47) 이상우, 『림멜의 자유주의 평화이론』(서울: 오름, 2002).

48)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50년사: 평화를 향한 50년(1954-2004)』(서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4).

와는 다른 한국 나름의 평화연구 방법론을 정립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⁴⁹⁾ 또한 이 시기에 대학에는 종속이론, 제국주의론, 관료권위주의이론, 조합주의이론 등 제3세계적 현실을 분석하는 서구의 이론들에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집중하였는데, 특히 탁월한 평화연구자인 갈통의 평화이론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연구되는 계기가 되었다.⁵⁰⁾ 여전히 평화문제가 국제정치학의 한 연구 분야로 다루어지고 있던 이 시기에 평화연구의 활성화를 자극한 것은 한 선구적인 평화 운동가였다. ‘교육을 통한 세계평화의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세계대학총장회의(IAUP) 명예회장인 조영식 경희대학교 총장은 유엔총회가 1981년 11월 30일 ‘세계평화의 날’을 매년 유엔총회가 처음 개막된 9월 제3주 화요일로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⁵¹⁾ 세계대학총장회 운동을 주도하면서 그는 1979년 세계대학총장회와 경희대학교 부설의 「국제평화연구소」를 설립하여 평화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평화운동에 필요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왔다. 「국제평화연구소」는 1987년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기존의 평화연구, 평화운동, 평화교육을 총체적으로 망라한 『세계평화대백과사전』(World Encyclopedia of Peace), 전 4권을 발간하였다. 1983년부터 시작하여 만4년이 걸린 발간작업에는 세계 40여개국(사회주의권 포함) 350여명에 달하는 석학들과 UN-

49) 하영선, “새로운 국제정치이론을 찾아서: 평화연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vol.21(1981).

50) 조현석, “평화개념의 현대적 전개에 관한 고찰: J.Galtung의 ‘비판적 평화연구’를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51) ‘세계평화의 날’은 조영식의 주도로 IAUP 코스타리카 총회에서 결의되어 정식으로 UN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UN은 1986년을 ‘세계평화의 해’로 제정하였다. 세계대학총장회, 경희대학교 부설 국제평화연구소, 『평화의 연구』(서울: 법문사, 1982), pp. 66-67.

ESCO, IAO 등 100여개의 국제기구들이 참여하였다.

이미 언급한 「국제평화연구소」이외에 1970년대 이후로 통일과 안보, 평화문제를 다루는 여러 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경남대학교의 「극동문제연구소», 고려대학교의 「평화연구소», 「통일연구원», 「세종연구소», 서울대학교의 「사회과학연구소», 한양대학교의 「중소문제연구소», 연세대학교의 「통일연구원」 등이 이 분야의 연구 성과를 꾸준히 생산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무엇보다도 1989년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가 발간한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관』은 한국에서의 평화연구의 내용과 방향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⁵²⁾

1990년대에 와서 비로소 한국의 평화연구는 국제정치학의 한 연구분야의 범위를 넘어 여러 학문분야의 학제적인 연구가 가능해진 「평화학」으로 성숙, 발전하게 되었다. 1998년 「한국평화학회」의 창립은 한국의 평화연구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한국평화학회」는 2003년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적극적 후원으로 한국의 평화학 연구와 평화교육의 최초의 기본텍스트라 할 수 있는 『21세기 평화학』을 출간하였다.⁵³⁾ 이 시기에 주목할 저술은 1997년 최상용의 『평화의 정치사상』이다. 이 책은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주요 평화사상들을 치밀하게 분석정리 해 줌으로써 한국 평화연구의 규범적, 가치판단적 토대가 풍부해지는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국제평화연구소」는 1999년, '99 서울 NGO대회 및 제18회 세계평화의 날' 을 기념하여 그동안 급변해온 국제질서 변동

52) 이호재 외,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관』(서울: 법문사, 1989).

53) 하영선(한국평화학회회장)편,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을 반영해 『세계평화대백과사전』을 전 8권으로 증보 발간하였다.⁵⁴⁾ 이 증보판 작업에는 고르바췌프 등 여러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스위스 유엔군축문제연구소」등 세계의 우수 평화연구기관 그리고 평화연구분야의 권위자들인 노르웨이의 요한 갈통, 조지 모델스키 워싱턴대 교수, 마이클 하스 하와이대 교수 등이 집필에 참여 하였다.

한국은 1987년 6·29 선언을 통한 민주화 달성이후로 민주주의가 공고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운동단체들이 출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표출하게 되었다. 1990년대에는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또한 많은 NGO 단체들이 한국에서도 의욕적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평화관련 이슈들이 활발하게 제기 되어 평화연구의 내용이 보다 확장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반전 평화운동, 반핵운동, 인권, 여성, 환경, 대량살상무기, 정보화 등의 분야에서 평화문제에 대한 괄목할만한 연구 성과들이 나오게 되었다.⁵⁵⁾ 특히 2000년 조민이 출간한 『한국사회 평화문화 활성화방안 연구』는 평화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평화문화의 창출과 정착의 이해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저술이라 하겠다.⁵⁶⁾

IV. 21세기 평화연구의 과제

지난 세기의 전반부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후반부는 표면

54) <http://www.gcs-ngo.org/data/worldbook.htm>(검색일: 2004.9.9).

55) 각 분야별로 다양한 평화연구 성과들은 김승채, 이학근, 앞의 책을 참고할 것.

56) 조민,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 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0).

적으로 강대국 간의 전쟁은 없었지만, 핵무기의 공포와 함께 세계 곳곳에 국지적인 분쟁과 갈등이 빈발했던 냉전으로 얼룩진 고통과 불안의 시기였다. 지난 세기 동안에 나름대로 활발하게 평화연구가 이루어져 온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인류가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1세기 탈냉전시대에서도 이러한 분쟁과 갈등은 그치지 않고 있으며 더욱 가공할 수준으로 발전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와 테러의 위협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급속한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개별 국민국가의 위상과 역할이 동요되는 가운데 기존의 국가중심의 군사안보의 범위를 넘은 개인·인간 중심의 비군사적인 대안적 안보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국제 NGO 그룹의 비약적인 성장은 항상 평화연구의 자극제가 되어온 평화운동의 영역을 크게 확대시켜 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세기 평화연구가 지향해야 하는 과제는 크게 평화문화의 정착, 그리고 평화와 안보거버넌스의 확립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평화라는 가치와 규범을 어떻게 내면화 할 것인가와, 이러한 평화와 안보를 어떻게 유지, 관리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다.

1. 평화 문화의 정착

평화는 국가들 사이에서건 시민사회 내에서건 간에 그 자체가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침윤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테면 ‘문화의 힘’을 통해서만 평화의 견고한 토대구축이 가능하다.⁵⁷⁾ 유엔

57) 조민, 위의 글, p. 4.

총회는 1997년에 2000년을 ‘세계평화문화의 해’ (International Year of the Culture of Peace)로 선포하였다. 유네스코는 1989년 코뜨디브와르(Cote d’Ivoire)의 야무수크로(Yamoussoukro)에서 『인간의 마음의 평화에 관한 야무수크로 선언』을 통해 ‘평화 프로그램’ (Program for Peace)을 마련하고 1995년부터 ‘평화문화’를 유네스코의 공식사업으로 채택했다.⁵⁸⁾ ‘야무수크로’ 선언의 골자는 첫째, 생명, 자유, 정의, 연대, 관용, 인권 및 남녀평등 등을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평화문화 개발 둘째, 인간관계에서의 정의 및 인간과 자연간의 조화로운 공생관계를 확보해 주는 공동정책의 수행 심화 셋째, 모든 교육프로그램에 반드시 평화와 인권의 가치 포함 넷째, 국제적 수준에서 일치된 환경 보호 및 관리 이다.

유엔이 정의한 ‘평화문화’는 살아 움직이는 평화를 의미한다. 그것은 일상생활가운데서의 인권존중을 의미하며 평화, 발전, 민주주의라는 세요소의 상호작용이 만들어 내는 힘이다. 삶의 문화로서 평화문화는 서로 다른 개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하고, 서로 나누고 경청하며 보살피는 새로운 삶의 의미와, 빈곤과 배타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적 책임감으로 이루어진다. 동시에 평화문화는 정치적 평등과 사회적 공평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평화문화가 추구하는 목적은 전쟁, 폭력, 기만, 차별의 문화를 비폭력, 대화, 관용, 연대의 문화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⁵⁹⁾

58) 〈Yamoussoukro Declaration on Peace in the minds of man〉 <http://unesdoc.unesco.org/ulis/ged.html> 위의 글 재인용.

59) 〈Manifesto 2000〉, <http://www.unesco.or.kr>

따라서 21세기 평화연구의 주요 과제인 평화문화의 정착을 위해 세부적·실천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 인권, 민주주의적 원칙에 대한 교육이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전략의 핵심에 위치하는 교육은, 평화가 인류의 기본적 가치라는 신념을 강화시키고 비폭력적 정신을 만들어 낼 뿐 아니라 국내적·지역적·세계적 차원에서 평화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책임감과 참여의식을 만들어 내야한다. 평화교육은 평화문화를 창출하는 실천적 활동이다.

둘째, 미디어 매체의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활용이다. 미디어는 교육과 함께 태도, 판단력, 가치들을 형성하는데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타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타인과의 관계를 결정한다. 평화를 진작시키는데 미디어의 중요성은 국제기구들에 의해 널리 인정되고 있고 국제기구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수많은 규범적 수단을 채택했다.

셋째, 문화적 다원주의와 문화간 대화 존중이다. 다양한 문화간 대화는 평화건설 전략의 본질적 요소이다. 문화적 정체성의 위기, 차별정책, 민족적·인종적·종교적·언어적 소수민족과 이민자와 원주민의 문화적 권리의 침해 등이 분쟁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세계에서 문화적 다양성의 인정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과 관리에 있어 중요하다.⁶⁰⁾

넷째, 평화 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정리를 토대로 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다. 평화운동은 지속적으로 평화연구에 자극과 동기를 부여한다. 오늘날 NGO의 활동이 여러 부분에서 활발해 지면서 평화운동 분야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여러 평화운동의 방향과 실천적 과제

60) 글로벌 거버넌스 위원회, “평화와 안보의 거버넌스,” 하영선, 앞의 책, p. 318.

에 관해 탐구 하는 것도 중요하다.

2. 평화와 안보 거버넌스의 확립

21세기 탈 냉전시대에 와서 국가간 전쟁이 일어난다면 더욱 ‘승자가 없는 전쟁’, ‘인류 공멸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계는 너무나 좁아지고 사람들은 너무나 상호의존적이 되었으며, 무기는 너무나 파괴적이 되었다. 각종 장거리, 대량살상무기들 때문에 국경선을 지키는 국방은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전통적으로 국제안보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국가의 생존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고, 이는 국제관계의 기저에 짙게 깔려 있어서 이 때문에 유엔 등이 주권국가의 영토와 자주적 주권의 불가침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규범은 한편으로는 국가로 하여금 강력한 군사체계를 구축하는 정당성을 제공하기도 했고, 군비를 강조하는 예산 정책이나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 제정을 부추키기도 했다.⁶¹⁾

그러나 외부로부터의 안보문제는 국제 안보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 중 하나 일 뿐으로 세계 대부분 국가의 안보가 계속 증진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더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는, 외부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지구자체의 생명유지 체제에 대한 위협, 극심한 경제적 빈곤, 재래식 무기의 격증, 국내의 공포정치, 기본권에 대한 침해 등으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중심의 안보의 성격과 내용이 보다 다각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날 국

61) 위의 글.

제체제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사람들의 안전을 지킬 것인가, 또 어떻게 국가간의 평화로운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욱 효과적인 수단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물음이 제기 되어진다. 이런 점에서 지구촌 이웃들이 효과적인 집단 안보체제의 도움으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문명화된 국제체제 정립을 위해 오늘날에도 평화와 안보유지는 모든 면에서 실현해야 할 목표가 되었다.⁶²⁾

따라서 역시 21세기 평화연구의 주요과제인 평화와 안보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해 세부적·실천적으로 요구되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군사력 중심의 국가안보의 내용과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정리이다. 세계화의 도전 속에서 오늘날 개별 국민국가의 역할과 위상이 동요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국민국가는 중요한 행위자로 남아있다. 아울러 군사 안보의 심층화된 분야의 상호안보, 공동안보, 협력안보 그리고 포괄적 안보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정리도 필요한 과제이다.

둘째, 군축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이다. 평화는 군축의 실현 없이는 불가능 하다. 국방비의 축소와 군비경쟁의 종식은 평화실현의 첫 걸음이다. 무기이전,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제거, 핵 확산 금지조약의 권위적 운용, 효과적인 핵실험 감시체제 확립,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운영 실태와 문제점 등이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셋째, 인간안보와 지구안보에 대한 집중적 관심이다. 과거에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빙자해서 개인의 안전을 해치는 정책이 빈번하게 실행되었는데,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전과 국가의 안전은 동등한 중요성을

62) 위의 글.

갖고 있고, 궁극적으로 서로 대립적이 아니라고 보며, 기아, 질병, 억압 등의 만성적 위협과 일상생활의 안정을 깨뜨리는 혼란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포함한다. 지구안보 역시 각종 환경오염,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등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인류 전체의 생존과 직결 된다는 점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분야이다.

넷째, 유엔 현장에 따른 유엔의 제반 평화유지 및 평화 지원 관련 활동 등에 관한 연구이다. 1991년 걸프전쟁의 경우처럼 유엔 다국적군의 무력발동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2004년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강대국의 독선적 판단에 따른 전쟁도 가능해진 오늘의 현실에서 유엔의 권능과 역할에 대한 문제점과 새로운 대안기구의 모색도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다섯째, 현재 진행중인 세계화의 윤리적 토대 구축을 위한 연구이다. 오늘날 세계화는 강대국의 독선과 약소국의 희생위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 그러나 전지구적 공동체의 공존과 공영은 평화와 안보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필수요건이다. 이제는 약소국은 물론 강대국까지도 마땅히 따라야 하는 세계화의 보편적인 윤리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이다.⁶³⁾

V. 맺음말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이 야누스적인 명제는 고대로부터 21세기인

63) Peter Singer, *One-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2).

오늘에 이르기 까지 모든 인류가 아직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영원한 숙제이다. 지금까지 평화연구의 주요흐름에 대한 분석과 정리에서 볼 수 있듯이 평화문제에 대한 치열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는 것은, 전쟁과 분쟁으로 점철되었던 지난 세기에 평화에 대한 인류의 염원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가를 설득력있게 대변해준다.

민주주의는 군대의 총과 칼로 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성숙한 의식으로 지켜질수 있다는 카(E.H.Carr)의 지적처럼 평화도 힘으로 만이 아니라 평화에 대한 성숙한 의식으로 지켜질 수 있다. 오늘날 지구촌(global village)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평화에 대한 의식이 일상생활 속에 내면화 되어야한다. 다시 말해 평화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평화연구가 지향해야 하는 과제는 평화문화를 어떻게 정착시켜 나갈 것이며 이러한 토대위에서 평화와 안보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인류의 지혜가 응축된 모든 학문분야가 망라된 더욱 치밀한 학제적 연구와 모든 평화운동 및 평화교육의 상호지속적인 자극과 유기적인 협력이 요구되어 진다.

앞으로 21세기는 평화의 세기가 되어야 한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으로 여전히 냉전의 외딴 섬으로 남아있는 우리 한국은 이 평화의 세기를 이루어 가야할 촉매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평화연구자, 평화운동가, 평화교육자들의 진지한 성찰과 성실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Abstract |

The Main Currents and Following Problems of Peace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main currents of peace research and to suggest the following problems of peace research in this century.

In analyzing and arranging the main currents of peace research, the periods are divided into Cold War period(1945-1970), Detente and New Cold War period(1971-1989) and Post-Cold War period (1990-present) by using the variables which contain extension of peace concept, development of peace movement and change of international society.

Cold War period saw the formation and demarcation of peace research. It's main currents are American 'traditional peace research' in 1950's that mainly treated war problem and North-European 'critical peace research' in 1960's that raised the question of structural violence by Galtung and German 'Neo-Maxist peace research' grounded by 'critical theory'.

In Détante and New Cold war period, besides East-West conflict, North-South problem was raised as new important issues of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peace research was developed to cover the third world countries. In Post-Cold War period, international world order was rapidly changed by the challenge of globalization and the concepts of security were more pluralized and terrorism as a new form of war was appeared. So the scope and method of peace research was more enlarged and developed.

Thus, the process of formation, demar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peace research until a recent date was a process that peace re-

search was developed into independent 'Peace Studies'. We are now living in the 21st century.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of tomorrow's peace research are firstly how to internalize the 'peace' into the minds of man, that is, how to fix the peace culture. The concrete research problems for fixing the political culture are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strategic and active use of mass media, cultural pluralism and peaceful dialogue between various cultures, searching for new alternatives for recent peace movement.

Secondly, how to guarantee, maintain, and manage the peace and security, that is, how to consolidate the governance of peace and security. The concrete research problems for this are, analysing and arranging the previous national security which mainly treated military power, intensive study of military disarmament, concrete research of human security and global security, UN's peace keeping activity according to the UN's Charter, the questions of UN's authority and role, new authoritative alternatives for today's UN, and research for building of ethical foundation of globalization. Now it is the time the peace researchers, peace movement activists, peace educators are all together to make serious introspection and sincere endeavour.

〈참고문헌〉

I. 단행본

- 김승채, 이학근, 『평화와 평화상』(서울: 서울평화상문화재단, 2004).
- 로버트 쿠퍼 지음, 홍수원 옮김, 『평화의 조건』(서울: 세종연구원, 2004).
- 박슬갑, 『평화학의 기초』(서울: 유신각, 1987).
- 배리 부잔 지음, 김태현 옮김, 『세계화 시대의 국가 안보』(서울: 나남, 1995).
- 세계대학총장회·경희대학교 부설 국제 평화연구소, 『평화의 연구』(서울: 법문사, 1982).
- 요한 갈통·아케다 다이사쿠 대담집, 손대준 옮김, 『평화를 위한 선택』(서울: 신영 미디어, 1997).
- 요한 갈통 지음, 김승채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서울: 법문사, 1982).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기획, 백운선 옮기고 씀, 『평화를 위한 국제선언-유엔과 유네스코 평화선언 자료집』(서울: 오름, 1995).
- 이리에 아키라 지음, 이종국·조진구 옮김, 『20세기의 전쟁과 평화』(서울: 을유문화사, 1999).
- 이상우, 『럼멜의 자유주의 평화이론』(서울: 오름, 2002).
- _____, 『국제관계이론』(서울: 박영사, 1990).
- 이호재 외,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안』(서울: 법문사, 1989).
- 일본평화학회 편, 이경희 역, 『평화학-이론과 실제』(서울: 문우사, 1987).
- 조민, 『한국사회 평화문화 형성 방안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2000).
- 최상용, 『현대 평화사상의 이해』(서울: 한길사, 1992).
- _____, 『평화의 정치사상』(서울: 나남, 1997).
-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서울: 풀빛, 2002).
- 한신대학교 평화연구소 엮음, 『평화: 이론과 실천의 모색 (I)(II)』(서울: 삼민사, 1992).
- 황병무, 『전쟁과 평화의 이해』(서울: 오름, 2001).
- Boulding, Kenneth E, *A Study of War*(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5).

- Cueller, Javier Preze De(ed.), *World Encyclopedia of Peace*, vol.1 (NewYork: OCEANA Publication Inc, 1999).
- Galtung, Johan, *Peace Research, Education and Action: Essays in Peace Research*, vol. I ,vol.IV(Copenhagen: Christian Ejlers, 1975).
- _____,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PRIO: Sage Publication, 1996).
- Kurtz, Lester(ed.),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 Conflict*, vol.2 (London: Academic Press, 1999).
- Moller, Bjorn, *Common Security and Non-offensive Defense. A Non-realist Perspective*(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cations Inc, 1992).
- Nolan, Janne E(ed.), *Global Engagement: Cooperation and Security in the 21st Century*(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 Singer, Peter, *One-World: the Ethics of Globalization*(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2).
- Smoke, Richard and Kortunov, Andrei(eds.), *Mutual Security: A New Approach to Soviet-American Relation*(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 Taylor, Trevor(ed.), *Approaches and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London: Longman, 1978).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UNDP), *Human Development 1994*(New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Wright, Quincy, *A Study of War*(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1965).

II. 논문

- 구영록, “국가 중심주의와 평화체제,” 『국제정치논총』, 제37집 1호(1997).
- 조현석, “평화 개념의 현대적 전개에 관한 고찰 - J. Galtung의 ‘비판적 평화연구’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3).
- 하영선, “새로운 국제정치 이론을 찾아서: 평화연구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

- 총』, vol.21(1981).
- 현인택, 김성한, “인간안보와 한국외교,” 『IRI 리뷰』, 5권1호(2001. 3).
- Boulding, Kenneth, “The Philosophy of Peace Research,”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Association: Third congress vol.1, *Philosophy of Peace Research*(Assen: Van Gorcum, 1970).
- Dumm, David J, “Peace Research,” Trevor Taylor(ed.) *Approaches and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London: Longman, 1978).
- Galtung, Johan,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Peace and World Structure: Essays in Peace Research*, vol.Ⅳ(Copenhagen: Christian Ejlars, 1980).
- _____, “Violence, Peace and Research,” *Essays in Peace Research*, vol.1 (1975).
- _____, “Editorial,”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1, no.1(1964).
- Rogers, Paul and Ramsbotham, Oliver, “Then and Now: Peace Research: Past and Future,” *Political Studies*, XLVII(1999).
- Schmid, Herman, “Peace Research and Politics,”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5, no.3(1968).
- Senghaas, Dieter, “Conflict Formations in Contemporary International Society,”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10, no.3(1973).
- Stephenson, Carolyn M, “Peace Studies, Overview,” Lester Kurtz(ed), *Encyclopedia of Violence, Peace & Conflict*(London: Academic Press, 1999).
- <http://www.gcs-ngo.org/data/worldbook.htm>(검색일: 2004.9.9)
- <Yamoussoukro Declaration on Peace in the Minds of Man>
- http://un_esdoc.unesco.org/ulis/ged.html
- <Manifesto 2000>, <http://www.unesco.or.kr>